

# 포항시, ‘그래핀 육성’ 성과… 2차원 소재 산업 중심지 도약

포스텍, 교육부 글로벌랩 신규과제 초박막 대면적 반도체 공모 선정  
향후 9년간 국비 135억 지원받아

포항시가 그래핀을 비롯한 2차원 소재 응용기술 개발을 통해 첨단 신소재 산업 거점으로 도약할 발판을 마련했다.

시는 지역 전략산업인 그래핀 육성에 주력하는 가운데, 포스텍이 교육부 글로벌랩 신규 과제 ‘초박막 대면적 반도체 소재개발 및 상용화 지원’ 공모에 최종 선정됐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선정으로 포스텍은 향후 9년간 국비 135억원을 지원받게 되며, 총 사업비는 171억원 규모에 이른다.

이번 사업은 그래핀 등 2차원 소재의 응용기술 연구개발과 상용화 촉진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포항시는 연구 성과가 실제 산업현장에 적용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고, 지역 기업 참여와 외부 기업 유치에 위한 기술사업화 생태계 조성에도 주력할 방침이다.

또한 포스텍 반도체공학과·반도체대



포항시청.

학원과 연계해 전문인력 양성 프로그램을 운영, 차세대 신소재 산업을 이끌 핵심 인재를 체계적으로 배출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포스텍은 지속 가능한 연구 거점으로 자리매김하고, 지역 특화 연구 역량 강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시는 이번 과제가 지역 전략산업인 그래핀 육성과 긴밀히 맞닿아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강조했다. 그래핀은 기존 소재의 한계를 뛰어넘는 차

세대 혁신 소재로, 포항시는 일찍이 그 가능성에 주목해 철강·이차전지 중심의 산업 구조를 넘어 첨단 소재 산업을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육성해왔다.

아울러 지역 내 그래핀 관련 기업들과 교류하며 산업계의 실질적 수요를 반영하고, 연구개발과 산업화 과정에서 필요한 기술 지원을 이어갈 방침이다. 이를 통해 연구 성과가 단순한 학술적 성과에 머물지 않고, 지역 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산업현장의 문제 해결로 이

어지도록 체계적인 기술사업화 기반을 다지고 있다.

시는 또 국가 차원의 그래핀 산업 육성과 기술 보호를 위해 그래핀의 국가첨단전략기술 지정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을 방문해 관련 건의를 이어가며, 향후 수요조사에도 대비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오는 11월 블루밸리 국가산업단지 내 그래핀스퀘어의 세계 최초 그래핀 필름 양산공장 준공이 예정돼 있어, 이번 사업과 맞물려 포항은 2차원 소재 산업 생태계의 중심지로 도약을 본격화할 전망이다.

서현준 포항시 배터리첨단산업과장은 “이번 공모사업 선정은 포항이 그래핀 등 2차원 소재 분야에서 연구개발과 산업화를 이어갈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연구개발부터 산업화까지 전 과정에 행정 지원을 아끼지 않고, 지역 기업과 연구기관이 세계적인 선도 위치에 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포항(경북)=김진곤 기자

jington@metroseoul.co.kr

## 지역 이모저모

### 전남도

#### 몽골과 기후·농업 등서 협력

전라남도는 지난 7일 3박 4일간의 몽골 공식 방문을 통해 기후위기 공동 대응과 통상·농업·교육·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 기반을 마련했다.

이번 방문은 전남도 최초 몽골 방문으로, 울란바토르시와의 우호교류 협약을 비롯해 농업기술 협력, 관광홍보, 문화교류, 수출상담회 등 실질적인 성과를 이끌어냈다.

방문의 핵심 성과로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아마르투브신 암갈란비타르 부시장과 협약을 하고, ▲통상·산업 ▲농업·축산 ▲교육·청년교류 ▲문화·관광 등 다방면에서 지속가능한 교류를 추진하기로 했다. /전남=양수영 기자

### 고창군

#### 세계유산축전 등 가을축제 다채

심덕섭 고창군수는 석정웰파트호텔에서 ‘세계유산도시 고창에서 즐기자’를 주제로 기자간담회를 열고 “가을시즌 다양한 축제와 행사들의 성공적인 개최로 도시 활력도를 끌어 올리겠다”고 강조했다. 심 군수는 ‘제62회 전북특별자치도 도민체전과 장애인체전’을 비롯해 ‘2025세계유산축전’, ‘제52회 모양성제’ 준비상황을 설명하며 적극적인 홍보를 당부했다.

심덕섭 군수는 “이번주 도민체전을 시작으로 장애인체전, 세계유산축전, 모양성제까지 올 가을 고창군이 축제와 행사로 들쭉인다”며 “전북도민은 물론, 국내·외 관광객이 고창에서 머물면서 고창군 이미지를 향상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다”고 밝혔다. /고창(전북)=양수영 기자

### 함평군

#### 장애인체육회 공식 출범

전남 함평군이 장애인의 오랜 염원인 함평군장애인체육회 출범을 공식화하며 장애인 체육 발전과 지역사회 통합을 이끌 새로운 전기를 마련했다.

함평군은 9일 “함평군장애인체육회 창립 총회 및 이사회”가 지난 8일 함평군청 소회의실에서 개최됐다”고 밝혔다. 이번 총회는 체육회 설립을 공식적으로 알리고 향후 운영의 기반을 다지는 자리였다.

/함평(전남)=양수영 기자

### 영덕군

#### 오는 13일 테니스 축제 열려

영덕군(군수 김광열)이 생활체육의 열기를 더하며 동호인들을 위한 테니스 축제를 오는 13일 개최한다.

영덕군테니스협회가 주최·주관하고 영덕군민테니스장과 보조경기장에서 열린다. 이번 대회는 전국 테니스 동호인 중 대회 기준 구력 36개월 이하 참가자들이 팀을 구성해 출전한다.

경기 방식은 예선 조별 리그전을 통해 순위를 가린 뒤, 본선은 토너먼트로 진행돼 최종 우승팀이 결정된다.

/영덕(경북)=손기섭 기자 gbnews8082@



경북도가 한국동서발전과 ‘영주 무탄소 전원개발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경북도

## 경북도, 영주 무탄소 전원개발 추진

동서발전 ‘맞손’… 전력수급 대응  
1.2조 투자해 2035년 준공 목표  
1182억 경제 효과, 일자리 창출 기대

경북도가 한국동서발전과 함께 ‘영주 무탄소 전원개발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영주 지역에 무탄소발전소를 건립해 친환경 에너지 기반을 구축하고 국가 전력수급에 대응하는 한편, 풍부한 전력을 활용한 첨단 미래산업 육성의 토대를 마련할 계획이다.

한국동서발전과 영주시는 사업 부지 확보 등을 지역사회와 소통하며 적극적

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사업은 총 11만 5000㎡(3만5,000여 평) 규모 부지에 500MW급 무탄소발전소와 에너지저장장치(BESS)를 건설하는 것으로, 약 1조 2000억원이 투자되며 2035년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발전소 건설과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주변 지역 지원금과 지방세 등으로 약 1182억원의 지역경제 효과가 기대된다. 건설이 완료되면 직접 고용인력 250여명, 가족을 포함하면 750명이 영주에 정착할 것으로 예상돼 새 일자리 창출과 경제 활성화가 기대된다.

/경북=김준한 기자 kih9@

## 부산경실련 “신백양터널 사업 중단하라”

통행량 증가, 8.5%에 그쳐

부산시가 추진 중인 ‘신백양터널’ 민간투자사업에 대해 부산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부산경실련)은 근거 없는 수요예측을 앞세운 불필요한 사업이라며 즉각 중단을 촉구했다.

부산경실련은 9일 부산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부산시가 올해 초 무료화한 백양터널의 통행량이 ‘40% 이상 증가’할 것이라고 밝혔지만 이런 수치는 어디서도 찾아볼 수 없다”고 비판했다.

부산시는 지난해 8월 백양터널 한시적 무료화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통행량이 최소 28~최대 37.7%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힌 바 있다.

부산경실련은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백양터널로 통과한 차량은 1670만대로 지난해 같은 기간 1530만대와 비교해 8.5% 증가하는데 그쳤다”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백양터널의 병목현상은 차로 수가 적어서 발생하는 문제가 아니라 특정 구간에서 차량이 과도하게 집중되면서 발생하는 구조적 문제”라고 밝혔다. /부산=이도식 기자 metrobusan@

## 전남도-광주시, 국방 무인체계 경쟁력 확보

전남대, 글로벌랩 공모사업 선정

전남도와 광주시는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이 주관하는 2025 글로벌랩 공모사업에 전남대학교 지능형 국방 무인체계 연구소가 최종 선정됨에 따라 차세대 무인 국방체계 분야 경쟁력을 확보하게 됐다.

글로벌랩 사업은 대학 부설 연구소를 지역 연구거점으로 육성, 기초연구 성과 창출과 인재 양성을 지원하는 국가 공모사업이다. 전국 11개 대학이 선정됐으며, 비수도권은 전남·광주를 포함 6곳이다.

이번 사업 선정으로 전남대는 지능형 무인체계 분야에 2034년까지 9년간 매년 15억원, 총 135억원의 국비를 지원받는다. 전남·광주 국방·AI 융합 분야의 거점 연구소로 도약할 계획이다.

전남대는 전남도가 역점 추진 중인 우주·국방 산업과 광주시의 AI 산업을 연계, 국방 분야 핵심 기술인 거점식 무인방어 체계와 이동식 무인작전 체계를 중점 개발하는 것을 연구 분야로 정했다.

세부적으로 ▲국방 무인체계 구축 ▲AI반도체 개발 ▲차세대 지능형 시스템 개발 등을 제시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연구소는 고흥 나로우주센터, 광주 AI특화단지, 목포대 화합물반도체센터 등과 연계해 전남·광주·고흥 국방 전략 기술 트라이앵글을 구축할 계획이다.

전남도는 글로벌랩 공모사업 선정에 필요한 협력 기반 마련을 위해 지난 5월 광주시·고흥군·전남대·목포대와 함께 전남 국방산업·광주 AI산업 발전을 도모하고 교육·연구 생태계를 조성하는 MOU를 체결했다.

/전남=양수영 기자 ysn6313@

## 목포로 몰려드는 해양쓰레기… 해결책 절실

원인 차단기술, 예방체계 구축 제안

매년 풍수해 때마다 목포 앞바다로 밀려드는 쓰레기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전남도의회 최선국 의원은 9일 열린 제39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목포 앞바다가 더 이상 영산강 쓰레기 처리장이 돼서는 안 된다”며 근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최 의원은 “최근 집중호우로 영산강 하구둑 수문을 개방하면서 1600t에 달하는 해양쓰레기가 목포항으로 유입돼 항만이 마비되고 어민과 시민들이 큰 피해를 입었다”며 “문제는 이 같은 상황이 매년 되풀이 하고 있다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해양수산부 조사에 따르면 국내 해양쓰레기의 65.3%는 육상에서 발생한다. 이 중 상당수가 하천을 따라 유입된다.

최 의원은 “상류에서 발생한 쓰레기 피해를 목포와 같은 하류 연안 지역이 고스란히 떠안고 있다”며 “환경정책의 기본 원칙인 원인자 책임 원칙이 이 같은 해양쓰레기 문제에서는 전혀 작동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간 국비 지원이나 지자체 협약을 통한 사후적 수거에 의존해 왔지만 이는 임시적 대응에 불과하다”며 “매년 투입되는 수십억 원의 예산을 단순 수거가 아닌 원인 차단 기술 개발과 예방 체계 구축에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목포(전남)=이대호 기자 eogh7505@